
 중심에 서다	-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 보도자료	
■ 자료제공 : 충북도청 대변인실(220-2063)	사진 ×	영상 ×
■ 내용문의 : 경제기업과장 강태인(220-3210)	기업지원팀장 이지선(220-3221)	
	업무 담당자 박노혁(220-3226)	
■ 2026년 4월 27일(월)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 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심의협의체 운영

- 지자체 구매의향서 발급체계 개선으로 공모사업 경쟁력 제고 -

충북도가 도내 기업의 정부 공모사업 참여 확대와 공공판로 개척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27일 충북도는 도내 기업의 기술·신제품 개발과 관련 정부 공모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품에 대한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심의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협의체와 함께 기업이 정부 공모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지자체 구매의향서’ 발급 기준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하고, 기업과의 상시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운영될 협의체는 기업 공모사업과 공공판로에 애로사항 등 수요가 많은 충북도 11개 실국으로 구성되며, 기업수요에 맞춰 수시 협의체 회의 등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협의체는 공모사업 지원 필요성과 기술성 및 사업성, 공공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구매의향서 발급 등 행정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한다.

그동안 지자체 구매의향서는 정부 공모사업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임에도 발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충북도는 협의체 운영으로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도내 기업의 정부 공모사업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도내 기업의 연구 생태계를 더욱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구매 의사가 기술 개발의 마중물이 되어 성과를 거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와 지역 기업이 협력해 수소 전기 기반 노면 분진 청소차를 개발하고, 시연을 통해 성능을 입증한 사례가 있다.

이는 지자체의 구매 의사가 기술 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협의체 운영을 통해 도내에서도 이러한 성공 사례가 확산될 전망이다.

강태인 충북도 경제기업과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경쟁력을 갖춘 도내 기업들이 정부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